

선원, 다례 불참시 쫓아내기도...

수인 스님 '청규와 차' 통해 송대 선원다례 발달 과정 살펴

“다선일미(茶禪一味)”, 차와 선이 한 맛으로 통하는 경지임을 일컫는 이 말이 다반사(茶飯事, 차 마시고 밥 먹듯 일상생활이 곧 선이라는 말)로 불리는 요즘이다.

조주 스님의 “차나 한잔 하고 가게나(喫茶去)”라는 화두를 비롯해 고려시대 이규보는 시에서 “한 잔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一甌卽是參禪始)”고 읊었다. 특히 초의 선사가 “차는 법회선열식(法喜禪悅食)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선과 차는 하나의 맛·경지로 표현되며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런 가운데 선가의 중요행사 중 하나로 계승돼 온 선원다례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수인 스님(동국대 이사)은 최근 저서 <청규와 차>(동국대출판부)에서 송대를 중심으로 선원다례의 발달과정과 특징 등을 살폈다.

송대는 다례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스님은 “조주 스님의 ‘꼭다저’라 불리는 다선공안(茶禪公案)이 다선일미의 중요한 소재가 됐다”며 “송대에 이르러 선종의 종통에 차

문화가 의례화되면서 중국 선종은 차 문화사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원청규> <입중일용> <입중수지> <교정청규> 등 청규서를 통해 선원다례의 사상의 핵심을 △ ‘은중(穩重)’과 △ ‘공장(功莊)’ △ ‘예법 △ 경(敬)과 화(和)의 사상 △ 대묘(大妙)와 중정(中正)으로 추려냈다. 은중은 공경스러우면서도 무게 있는 태도를 말하고, 공장은 근엄하면서도 장중한 태도를 말한다.

수인 스님은 “다량의 예법 실행이 엄중했고, 불참했을 때 처벌은 출원(出院)이라는 무거운 죄로 다스려졌다. 은중과 공장은 송대 선원다례의 기본윤리로서 선원의 기강을 세우는 방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청규서에서 차를 대하는 선원대중의 태도를 은둔과 공장으로 정한 것은 육우의 차 정신인 검(儉)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의 선원다례에서는 예도 강조됐다. 청규는 시대를 반영한 총림의 규범으로 총림 예법을 담고 있다. 수인 스님은 “총림의 청규는 일상

생활 속의 규범이란 점에서 유가의 예경(禮敬)에 비유돼 왔다”며 “청규에는 유가에서 말하는 예 정신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청규 정신이 시의라는 예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위에 근원한 예가 잠깐 예인 것처럼 선원의 규구 또한 인위적 구속이 아니라, 성품의 활발발(活潑)성에 바탕해 부처의 지혜와 행을 나누는 것이다. 선원다례에서 예를 추구하며 선을 수행하는 것은 조급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원청규>에서는 불교의식을 행함에 공경심으로 예를 나타낼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수인 스님은 “선원다례가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예의 본질인 경(敬)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현 과정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경에는 집단의 화(和)를 실현하려는 뜻도 내포

돼 있다”고 말했다. 선원다례에서 담긴 예경이 총림 대중에게 절도 있는 위와 격조 있는 품위를 유지시켜 수행인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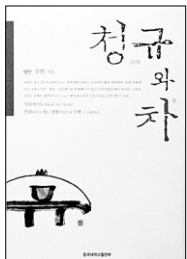
선원에서 선과 차가 어우러진 차 문화는 ‘대묘’와 ‘중정’의 다선일미로 함축된다.

중정은 법사대로 차를 마심으로 써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바로고 알맞은 태도와 위의를 갖추는 것으로, 청규서에 따르면 대묘라는 경지로 표현된다.

수인 스님은 “마조의 ‘평삼심이도(平常心是道)’는 선원다례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며 “선원다례는 차를 마시는 일상 속에서 선과 차의 고차원적 정신통일을 지향하는 점에서 선수행의 다른 모습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선원다례는 (출가자만의) 폐쇄적 선원문화가 아니다. 재가자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개방적 교화정신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송대 선원다례를 조명한 <청규와 차>

개운사 목조아미타상 등 최초 공개

불교중앙博 '2010 상설전' 2일 개막... 보물 9건 등 125점 선보여

최근 보물 지정(예고된 개운사·운림사·보광사 유물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3월 2일 '2010년 상설전'을 개막하고 보물 9건 등 59건 125점의 성보 문화재를 선보였다.

전시는 △제1전시실-부처님 일생과 전법 △제2전시실-신앙의 힘으로 창조한 불교미술 △제3전시실-수증사의 불상들과 사리장엄구로 나눠 진행된다.

제1전시실에는 <석지원류응화사적>(보물 제591호)을 비롯해 <백지묵서묘법연화경>(보물 제278호) 등 경전류 5건 38점이, 제2전시실에는 운림사 조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및 기타 불복장물(보물 제1646호),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복장물(보물 제1571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및 복장전적(보물 지정 예고) 등 불복장물류 12건 26점이, 제3전시실에는 수증사 승탑 사리장엄구(보물 제259호) 등 수증사 출토유물류 42건 61점이 전시된다.

최초로 공개되는 의성 운림사 조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은 마하가섭 존자가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갔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전은 11세기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해 초기에 인

출한 조조대장경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조조본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은 불상 개금 기록이 남겨진 '중간대사원문(中幹大師願文)' '최춘원문(崔椿願



의성 운림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文) '화광선사발원문(和光禪師發願文)' 등이다.

'중간대사원문(中幹大師願文)'은 고려 원종 15년(1274) 아산 동심사에 머물던 중간 대사가 폐사(廢寺)의 무량수불상을 개금하고 선량한 부모와 친척, 본인의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기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원문(崔椿願文)'과 '화광선사발원문(和光禪師發願文)'은 각각 1322년 5월과 8월에 복장된 발원문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팀장은 “공개되는 발원문은 개운사 아미

타불상이 1274년 이전에 조성돼 1274년과 1322년 개금됐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수증사 금동석가불좌상은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가 1479년 조성했다. 이후 1493년 성종의 후궁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주수해 조선왕실의 평화를 기

원했던 유물이다. 금동비로자나불상 등 금동불상 23구는 1628년 인목대비가 봉안한 것으로 수증사 팔각오층석탑의 기반 중대석, 1층 탑신석, 2·3층 옥개석에서 발견됐다. 봉안된 금동비로자나불상에는 불상 주조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17세기 왕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왕실불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8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02)2011-1963

이상근 기자

“오종장엄에 한국의 미래 대안 있다”

최봉수 미래학불교학회 이사, 정토사상 학술세미나서 주장

“<정토경>에 설해진 오종장엄(미타·극락·유정·보리수·보살 장엄)에 미래 한국의 대안이 담겨 있다.”

최봉수 미래학불교학회 이사는 3월 4일 정토종(총무원장 혜선)이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정토사상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이사는 주제발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정토 문화의 정립'에서 법본 <극락장엄경>을 다섯장엄으로 분류했다.

이어 최봉수 이사는 “미타장엄(제11~14단)에는 미래 한국지도자를 위한 정토문화가, 극락장엄(제16~18, 21~23단)에는 국토를 위한 정토문화가 설해져 있다. 유정장엄(제19, 20, 24, 33단)에는 국민을 위한

정토문화가, 보리수장엄(제32단)에는 종교를 위한 정토문화가, 보살장엄(제34~37단)에는 한국 사회의 리더 그룹을 위한 정토문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타장엄에 설해진 미래 지도자의 덕목은 광명, 성문, 수명이다.

최 이사는 “<극락장엄경>에서 말하는 광명은 희망을, 성문은 신뢰를, 수명은 강녕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봉수 이사는 “극락장엄에서 말하는 극락정토가 이상적인 현실 국가의 국토관”이라며 “의식주의 해결, 차별 철폐 등 유정장엄에서 설해진 내용은 국민을 위한 미래 복지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극락장엄경>에서의 보리수장엄 부분이 종교적 도량의 바른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이사는 “경전은 종교시설물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웅대하고 장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종교 시설물이 대중의 귀의처가 되려면 큰 규모로 장엄해 대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살에게도 나름의 광채가 있다” “32상의 몸매를 갖추고” “결코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공양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며 이어 최봉수 이사는 “극락정토 등 부분은 사회지도층을 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봉수 이사는 “보살장엄에 설해진 보살의 요건은 부처님 공양하듯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등 오늘날 사회지도층이 갖춰야 할 덕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보원사지 5차 발굴 4월부터 1만㎡ 조사재개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제5차 발굴조사가 4월부터 시작된다.

서산시는 최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지방목)가 4월부터 서산 보원사지 내 유적지 1만㎡에서 발굴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산 보원사는 주변에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이 있고, 사지에서는 1968년 백제금동여래입상이 발견돼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특히 2005년 11월 보원사지 인근에서 백제 금동관과 철제초두 등 다른 사회지도층을 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산시 관계자는 “제5차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당간지주 주변은 건물터로 추정되는 곳과 인접해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 불교문화재 16건 보물로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지정돼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은 최근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대구·경북 지역 중요 불교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문화재 16건은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3호)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634호)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35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1636호) △예천 운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7호)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보물 제1638호)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보물 제1639호)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40호)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보물 제1641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42호) △안동 불경사 아미타설법도(보물 제1643호) △예천 운문사 천불도(보물 제1644호) △안동 광흥사 동종(보물 제1645호) △조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보물 제1646호) △길흥축월회간 목판(조물 제1647호)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보물 제1648호)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불



보물 지정된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경북 북부 지역 사찰 소장 1만390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동섭 기자

정토종 학술대회 원만회향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 정토종은 지난 3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정토사상 학술대회를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 속에 여법하게 성료하였습니다. 정토종의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바쁘신 불사 중에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토종은 원효(元曉) 대사의 정토사상을 이어받아 염불(念佛)을 통한 성불(成佛)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불교 전통종단입니다. 정토종은 이번 정토사상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오늘날 불교에서의 정토사상과 현대사회에서 정토신앙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이날 제안된 사부대중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 정토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토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토종의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임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정토종이 개최한 정토사상 학술대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한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혜선 합장

정토종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337-2번지 신흥사
☎ 042)823-5641, 822-5645 팩스 042)824-5641

